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가입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 사업의 지원 혜택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을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가입연령 연장: 65세~74세 → 65세~79세
- 지급기한 연장: 75세 → 84세
- 지급단가 인상: (매도) 월 27만원(1ha) → 월 50만원(1ha)
(매도조건부 임대) 월 21만원(1ha) → 월 40만원(1ha)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사업이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기회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농지은행처 농지은행디지털센터	책임자	부 장	윤귀남 (061-338-5911)
		담당자	대 리	형남주 (061-338-5912)



「농지이양은퇴직불」이란?



농지이양은퇴직불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농지이양직불 혜택 살펴보기

혜택 1 가입연령 연장



가입연령은 만65세 이상 만79세 이하로 기존 경영이양직불보다 가입연령이 5세 연장되었습니다! 가입연령을 연장해 더 많은 농업인이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택 2 지급 기한 연장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84세까지 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지급기한이 75세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9세가 연장된 셈입니다. 지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늘어난 기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지급기간의 최장 10년(120개월)만

혜택 3 지급 단가 두배 인상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 시 매도 대금에 더해 1ha 기준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 조건부 임대 시 1ha 기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단가는 약 2배 인상되어 고령 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